

윤동주 시에 나타난 유교적 기독교와 종말론*

엄 국 현**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식민지 시대의 종말론과 종말론적 서정시 |
| II. 유교적 기독교와 거울 모티프의 시 | V. 맺음말 |
| III. 시인의 길과 유교적 수양론, 그리고 동심 | |

I. 머리말

이 논문은 식민지 시대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의 종교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윤동주 시에 나타나는 종교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개인의 수양이나 신앙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인 차원으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윤동주가 지니고 있었던 유교적 관념이나 기독교의 종말론과 재림신앙은 식민지 시대의 사회 정치적 의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인제연구장학재단 국외연수 과제임.

** 인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한국학부 교수, 한국문화와 문화전략연구소.

운동주가 기독교 시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¹⁾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었으나, 그의 종교시가 유교적 가치와 기독교의 만남에서 비롯된 이른바 ‘유교적 기독교’²⁾라는 점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종말론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³⁾ 운동주의 시세계와 종말론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신익호는 운동주의 기독교시 가운데 「태초의 아침」, 「또 태초의 아침」, 「새벽이 올 때까지」에 종말론적 세계관이 나타나며, 그것은 미래의

1)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마광수, 『운동주 연구』, 정음사, 1984.

박이도, 『한국 현대시와 기독교』, 예전사, 1987.

김남조, 「운동주 연구-자아 의식의 변모를 중심으로」, 『운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5.

신익호, 「운동주 시의 기독교 의식관」, 『문학과 종교의 만남』, 한국문화사, 1996.

최문자,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사상의 상징적 해석』, 태학사, 1999.

양왕용,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기독교 세계관의 토착화 양상」, 『한국문학논총』 30집, 한국문학회, 2002. 6.

박춘덕, 「운동주 연구」, 『한국문학논총』 31집, 2002. 10.

2) 가톨릭 교리서인 『천주실의』 등을 지은 마테오 리치는 유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해설하였는데, 이렇게 유교적으로 정리된 그리스도교의 문헌이 한국에 수입되어 한국교회는 발생하고 성장하였다.(정대위, 『그리스도교와 동양인의 세계』, 한국신학연구소, 1986, 28쪽 및 152쪽 참조) 한국에 전래된 초기 한국기독교의 유교와의 종교적 혼합현상을 지칭하는 데 적합한 용어가 ‘유교적 기독교’라 생각되는데, 이 ‘유교적 기독교’라는 용어는 이은선·이정배, 『현대이후주의와 기독교』(다산글방, 1993), 509쪽에서 가져온 것이며,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뿐만 아니라 두 가치의 화합과 조화를 뜻하는 용어로 읽히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다.(510쪽 참조)

3) “오랫동안 신약성서의 묵시문학적 사고형식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있어 왔다. 기독교인들이건 비기독교인들이건 간에 똑같이 원시적이고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종말에 관한 사변들에 탐닉하고 가공할 이미지들과 기괴한 환상들에 대한 문자적 이해에 매달리는 세계관으로부터 거리감을 느껴왔다. 더군다나, 세계의 종말에 관한 묵시문학적 예언자들의 예언들은 완강한 역사의 지속 때문에 번번히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J. C. 베커, 『바울의 묵시사상적 복음』, 장상 율김, 한국신학연구소, 1987, 11쪽.

조국 광복, 최후 심판 후 예수의 재림, 원초적인 인간의 이상향이나 희망을 상징한다고 본 바 있다.⁴⁾ 그러나 운동주 시를 꼼꼼히 읽어 보면 종말론 사상은 기독교 교리를 형상화한 다소 관념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서정적인 작품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흐르는거리」와⁵⁾ 「쉽게씨워진詩」인 바, 이들 서정적인 작품은 그의 기독교시와 다른 차원에서 운동주가 종말론 신앙을 믿고 있었다는 구체적이며 확실한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이 두 작품에서 종말론 사상은 의식된 것이 아니라 무의식중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종말론 사상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사회의 정치적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며, 운동주의 시와 삶, 특히 그의 옥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의 운동주 연구에서는 이 종말론 사상이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 어떤 사회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주 시에 나타난 종말론과 재림신앙이 지닌 의미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우선 기독교와 유교의 유사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운동주 시에서 유교적 관념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며, 마음의 수양을 위한 유교의 도덕적 노력이 동심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기독교와 유교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의 종말론이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 어떤 사회 정치적 의미를 지녔는지 살펴보고, 운동주의 유교적 관계형성과 기독교의 종말론이 그의 시와 삶, 특히 ‘치안 유지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후쿠오

4) 신익호, 「운동주 시의 기독교 의식관」, 230쪽. 마광수 역시 이 세 작품은 “아침이나 새벽의 심상을 최후의 심판이나 예수의 재림과 연결시켜 부활, 재생, 구원 등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기독교의 종말론적 역사관에 모티브를 둔 작품”(마광수, 『운동주 연구』, 136쪽.)이라고 보았다.

5) “금빛 회장을 두른 배달부는 (중략) 예수의 재림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김현자, 「대림의 초극과 화해의 시학」, 『운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5, 279쪽.

카 감옥에서 옥사한 그의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유교적 기독교와 거울 모티프의 시

운동주가 기독교 사상을 시로 형상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유교 사상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⁶⁾ 운동주의 시에 나타나는 종교 사상은 유교의 인격적 삶이 그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종교를 유교적 기독교라고 불러도 무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운동주의 종교를 유교적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선 그가 자신의 사명인 시인의 삶을 기독교 용어뿐만 아니라 유교적인 용어로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얗게 눈이 덮이었고
電信柱가 잉잉 울어
하나님말씀이 들려온다.

무슨 啓示일가,

빨리
봄이 오면
罪를 짓고
눈이

6) 오세영은 「서시」 1행이 맹자의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죽는 것이 올바른 천명이다’는 말씀과 君子 三樂 중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씀의 복합적 진술이라고 한 바 있다. 오세영, 『한국현대시 분석적 읽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250-251쪽 참조.

밝어

이쁘가 解産하는 수고를 다하면

無花果 잎사귀로 부끄런데를 가리고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 「또太初의아춤」 전문. 152.7)

계시처럼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 눈을 밝게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시는 성경의 원래 의미와 달리 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개신교의 노동관이 이 시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노동은 소명노동과 연관되어 있다.

기독교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노동 관념을 변화시켜 갔다. 한국인은 일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고, 그것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점은 초기의 선교사들에게도 알려져서 한국 기독교인들을 교육할 때 이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략) 기독교의 노동관에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름’ 즉 소명이다. 소명감을 붙여넣는 그 일에는 귀하거나 천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에 따라 맡겨진 일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⁸⁾

루터는 1522년에 인간의 세속적 활동을 신앙적 활동과 똑같이 소명(Beruf)으로, 즉 소명노동(Berufsarbeit)으로 정의했다. 소명으로서의 이러한 노동은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제반 직업 및 신분의 형

7)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 왕신영·심원섭·오오무라 마스오·윤인석 엮음, 민음사, 1999. 이후 인용되는 시는 모두 이 책에 따르며, 쪽수만을 본문의 시 제목 옆에 표시한다.

8) 이만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두레시대, 1998, 409-411쪽.

대로 나타나는 것인 바, 루터는 이러한 것을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수행
해야 할 종교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⁹⁾

운동주에게 있어 이마에 땀을 흘리는 노동은 시를 쓰는 것이었다. 운
동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것은 눈이 밝은 시인이 되는 것이
었다. 그는 이 소명노동을 ‘天命’이란 유교적 용어로도 표현하고 있다.

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六疊房은남의나라,

詩人이란 슬픈天命인줄알면서도
한줄詩를 적어볼가,

- 『쉽게씨워진詩』 1, 2연. 181-182.

운동주가 시인을 천명, 다시 말하면 천직인 소명노동으로 생각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운동주의 기독교 신앙을 유교적 기독교라
고 할 수 있는 것은, 운동주가 자신의 소명을 기독교적인 용어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유교적인 용어인 ‘天命’이라고도 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기독교와 유교가 절대적 존재인 하늘에 대한 신앙을
지니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 발을 디딘 서양의 선교사들은 일찍이 기독교와 유교의 유사성
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것은 절대적 존재인 하느님, 즉 하늘에 대한
신앙이다. 왕부지 사상을 통해 유교와 기독교의 사유방식의 차이를 논하
면서 프랑스와 줄리앙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왕부지에 있어 ‘천명’이라는 표현은 고대유가의 그것과는 달리 분명
한 종교적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그의 ‘천명’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생의 위임-소명에 대한 생각

9) 이은선·이정배, 『현대이후주의와 기독교』, 66쪽.

을 담고 있다. 인간은 생의 임무가 있다. 유가 전통의 눈에 삶은 두 차원에서 이해된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천성을 부여받은 삶이며, 그 원천으로부터 스스로를 펼쳐 나가라는 내면적 의무를 부여받은 삶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삶에 대한 동일한 소명을 지닌다. 다른 하나는 개별적 현동으로서의 삶이며, 우연적으로 주어진 운명의 영향을 받고 있다.¹⁰⁾

유교에 있어서 천명은 소명과 운명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운동주의 다음과 같은 시에는 소명과 운명의 양면적 성격을 지닌 천명에 대한 사상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라 할 수 있다.

거 나를 부르는것이 누구요,

가랑뉘 이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呼吸이 남아 있소.

한번도 손들어 보지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몸들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오.

일이 마치고 내 죽는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뉘이 떠러질텐데……

나를 부르지마오.

- 『무서운時間』 전문. 154.

시적 화자를 부르는 목소리는 ‘일’, 다시 말하면 이마에 땀을 흘리는 소명노동과 관련된 것이며, ‘무서운時間’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10) 프랑스와 즐리앙, 『운동과 창조』, 유병태 옮김, 도서출판 케이스, 2003, 179-180 쪽 참조

소명을 불가능하게 하는 어떤 것이다. 소명을 불가능하게 하는 무서운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의 시간, 내일을 알 수 없는 목숨의 문제, 천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명이란 개념에는 양심의 부름을 듣는 소명이란 뜻과 함께 우연적 비극, 외면적 자연성으로서의 운명의 뜻도 지니고 있다.¹¹⁾ 윤동주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전에 죽는 운명을 맞고 말았으니, “나를 부르지마오”라는 이 시의 마지막 절규는 소명을 다하기 전에 자신의 죽음이 도둑처럼 올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예감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늘을 알고 하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며, 기독교에 있어서도 수덕과 신비적 수행이 중요한 만큼 수양론은 유교와 기독교가 만날 수 있는 곳이다.¹²⁾ 윤동주의 시에 나타나는 길의 모티프나 거울 모티프는 어진 인격자가 되기 위한 유교의 수양론을 반영한 것이다. 윤동주의 종교를 유교적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속에
내얼굴이 남아있는것은
어느 王朝의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가

나는 나의懺悔의글을 한줄에 주리자,
-滿二十四年一個月을
무슨김빔을바라고살아왔든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어느 즐거운날에
나는 또 한줄의 懺悔錄을 써야한다.
-그때그 젊은나이에

11) 김형효, 『맹자와 순자의 철학사상』, 삼지원, 1990, 28-30쪽 참조

12) 김승혜, 『논어의 그리스도교적 이해』, 도서출판 영성생활, 2002, 333-339쪽 참조

웨그런 부끄런 告白을 했든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隕石밑으로 홀로거러가는
슬픈사람의 뒷모양이
거울속에 나타나온다.

- 「懺悔錄」 전문. 176.

운동주의 시 「참회록」(1942. 1. 24)에 나타나는 ‘구리 거울’은 ‘왕조의 유물’이나 ‘욕됨’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인지 식민지 백성의 절망적 자기 인식이라거나¹³⁾ ‘역사의 거울’로 보기도 하고,¹⁴⁾ 이 시를 쓴 지 닷새 만에 창씨개명계를 제출했다는 전기적 사실과 관련하여 저항시로 보기도 한다.¹⁵⁾ 이 시의 구리거울은 그러나 성리학적 수양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는 「참회록」의 자필 시고의 여백에 적힌 ‘古鏡’이란 말에서 찾을 수 있다.¹⁶⁾ 운동주가 남긴 이 ‘落書’는 그의 시와 삶을 해명해 줄 단서가 되는데, 문학과 생활의 틈에서 생긴 비애는 금물인 바, 도를 알 수 없는 시를 위해서는 생존해야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도항증명이 필요하다. 생은 힘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고경’이란 말은 주희와 퇴계의 시에 나오는 말이며 마음을 상징한다.¹⁷⁾ 그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김남조, 『운동주 연구』, 49쪽.

14) 김윤식, 『구리거울의 사상』, 『청춘의 감각, 조국의 사상』, 솔출판사, 1999, 90쪽.

15) 송우혜, 『운동주 평전』, 세계사, 1998, 개정판1쇄, 255-256쪽 참조

16) 『운동주 자필 시고전집』, 176쪽 참조 “운동주는 「참회록」을 쓴 종이의 여백에 다음과 같은 ‘낙서’를 적어 놓았다. 詩人の 告白, 渡航證明, 上級, 힘, 生, 生存, 生活, 文學, 詩란? 不知道, 古鏡, 悲哀禁物”, 송우혜, 『운동주 평전』, 326쪽.

17) 신귀현, 『퇴계 이황』, 예문서원, 2001, 113-119쪽 참조

<주희의 시>

옛 거울을 거둬 갈고 닦음에는 옛 방법을 필요로 하나,
 밝은 눈은 공평치 못하게도 해와 더불어 빛을 다투네.
 우리들의 갈 길을 밝디밝게 비추니,
 병주(인간이 몸담은 물욕의 세계-신귀현의 해석)를 가리켜서 고향이라고 하
 지 말라.

<이황의 시>

거울이 땅속에 묻힌 지 오래 되어
 거둬 갈고 닦아도 쉽게 광채가 나지 않네.
 밝은 본성은 아직도 어두워지지 않았고
 옛 철인들은 그것을 닦는 방법을 남기셨으니,
 인생은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스스로 힘써 갈고 닦기를 귀하게 생각한다.
 위공은 그래서 아흔 다섯 나이에도
 아름다운 훈계를 큰 보배로 남기셨네.¹⁸⁾

위의 두 시는 퇴계 선생이 자신만의 수양을 위해 『古鏡重磨方』이란 책을 편찬하면서 각각 서문과 발문을 대신한 것이다.¹⁹⁾ 그런데 윤동주가 ‘古鏡’이란 시어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옛 거울이라 하지 않고 구리거울이란 말로 바꾼 것은 퇴계의 시에 나오는 ‘땅 속에 묻힌 거울’을 그 당시의 유리거울과 구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어느 왕조의 유물’이란 오랜 시간 돌보지 않은 채 버려둔 물건이란 뜻으로 읽을 수 있다. 그것이 욕된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거울이 지닌 본래의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다.²⁰⁾

18) 신귀현, 『퇴계 이황』, 113-114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古鏡重磨要古方 眼明偏與日光爭 明明直照吾家路 莫指并州作故鄉(주희) 古鏡久埋沒 重磨未易光 本明尚不昧 往哲有遺方 人生無老少 此事貴自強 衛公九十五 懿戒存圭璋(이황)

19) 신귀현, 『퇴계 이황』, 112쪽.

20) 필자는 2차에 걸쳐 『참회록』의 ‘구리 거울’ 이미지를 해석한 바 있다. 『자기분석과 존재의 빛에 대한 통찰』, 『현대문학의 심리학적 해석』, 둔석 최상운 선생 회

이 시의 시적 자아가 참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참회록」 2연의 “만 24년 1개월”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 전 생애와 관련된 것이며, 기쁨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는 것과 3연의 “어느 즐거운날에”라는 말로 미루어 즐겁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4연의 거울을 닦는 수행을 거친 뒤 5연의 거울에서 나타나는 “홀로거러가는/슬픈사람의 뒷모습”과 관련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불 도적한 죄”의 길이었고, “목에 맺돌을 달고/끝없이 沈澱하는 푸로메드어쓰”처럼 무겁고 힘든 것이었다(「肝」, 1941. 11. 20).

슬픈 사람의 뒷모습, 불 도적한 죄의 길은 시인의 소명과 관련된 것이다. 현실적 자아의 앞모습을 비추는 구리거울의 물질성을 초월하여 시적 자아는 명상을 통해 미래의 본질적 자아를 통찰하고 있다. 시적 자아가 참회하는 이유는 시인의 길이 외롭고 슬프기 때문에 그 길을 회피하고 싶은 어떤 ‘유혹’(「肝」, 1941. 11. 29) 때문이었다. 그 다른 길은 그러나 ‘풀 한포기 없는’(「길」, 1941. 9.31) 황폐한 길이었고, 그리운 고향에 가서도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눕거나 지조 높은 개에게 쫓기는(「또다른故郷」, 1941. 9) 치욕을 맛보게 하였으며,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얼굴이 비치는 것과 같은 욕된 것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길”(「서시」, 1941. 11.20)을 걷고 싶었던 시적 자아로서 소명의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면 어찌 참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어느 즐거운날”이란 유혹의 욕된 삶에서 본래적 삶을 회복한 날을 뜻한다. 그 본래적 삶의 즐거움이란 “외로웠든 사나이,/幸福한 예수 그리

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2000, 200쪽에서, ‘왕조의 유물’이란 말은 역사를 언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어렵게 하는 내면의 어떤 상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도입된 비유적 표현으로 보았고, 『운동주의 명상시 연구』, 『신어어문학』 1집, 신어어문학회, 2004, 212쪽에서는, 운동주의 시에 민족에 대한 사랑, 시대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명상의 거울의 차원을 넘어선 민족사와 관련된 용어로 본 바 있다. 운동주의 ‘구리 거울’이 성리학의 ‘古鏡’에서 비롯된 점이나 이 시의 참회가 천명과 관련된 점을 고려할 때 ‘구리 거울’은 명상의 거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의 필자의 생각이다.

스도에게/처럼/十字架가 許諾된다면”(「十字架」)과 마찬가지로 “홀로거러가는/슬픈사람”이란 시인의 십자가를 짊어진 즐거움이다. 십자가의 삶을 결단한 사람에게 고독하고 슬픈 시인의 길은 즐거운 일이며, “무슨김빔을바라고살아왔든가”라는 시인의 고통스런 생애와 관련된 비통한 고백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된다.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끝낸 날, “일이 마치고 내 죽는날 아침에는/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무서운時間」) 그런 그 어느 즐거운 날, 시적 자아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나 욕됨도 없을 것이다.

운동주의 시는 이처럼 한 작품의 이미지나 모티프가 다른 작품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환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운동주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욕망인 천명의식이 작품을 달리하여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유교에서 성리학은 인격적 완성을 추구하는 수양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리설이 심성의 이기론적 근거를 해명하고 있다면, 수양론은 심성의 보존과 배양을 통하여 인격의 향상을 추구하는 실천방법을 계발하는 데 주력한다.²¹⁾ 理氣와 성정을 통합하여 일신을 주재하고 만 가지 변화에 대처하는 인간의 마음은 그것이 발동할 때 경우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유학의 근본이념인 인간의 성선을 실현하려면 선악이 혼재된 기질지성을 천리에 따르는 본연지성으로 변화시키는 수양이 요구된다.²²⁾

성리학자들이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 것은 거울을 닦는 것이 마음을 닦는 것과 서로 통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운동주의 시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마음의 수양이란 문제인데, 이것을 운동주는 ‘冥想’이라고 부른 바 있다. 운동주의 시에 명상의 모티프가 나타나는 것은 1937년 그의 나이 21세 때부터인데, 그는 동저고리바람으로 언덕으로 숲으로 산

21) 금장태,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199쪽.

22) 신귀현, 『퇴계 이황』, 123쪽.

책하거나(「한란계」), 달밤의 묘지를 거닐거나(「달밤」), 눈을 가볍게 감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인 연정을 관찰한다(「冥想」). 1938년도에는 촛불 명상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맛보게 된 「사랑의殿堂」이 씌어지고, 또 황혼녘 호숫가에서 모든 감정을 물결에 씻어 보내는 명상을 ‘異蹟’이라고 말한 「異蹟」이 씌어진다. 1939년에는 밤의 산골 물에서의 명상체험이 나타나고(「산골 물」), 달 밝은 밤 우물을 통해 자아의 본질을 통찰하고자 한 「자화상」이 씌어진다. 1940년 「病院」에서는 늙은 의사가 젊은이의 병을 모른 것에 대해 “이 지나친 試鍊, 이 지나친 疲勞, 나는 성내서는 앓된다”와 같은 마음을 닦는 수양의 모티프가 나타나며, 자신의 삶의 소명과 운명의 문제를 통찰한 「무서운 시간」이 씌어진다. 1941년에는 기독교를 소재로 한 시편들과 함께 어두운 좁은 방에서의 명상을 통해 “思想이 능금처럼저절로익어”가는 체험을 노래한 「돌아와보는밤」과, 어둔 방에서 비본래적인 자기와 본래적인 자기의 갈등을 관찰한 「또 다른故郷」과 「길」, 「별헤는밤」, 「肝」이 씌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懺悔錄」이 1942년에 씌어질 만큼 명상의 모티프는 그의 시에 일관되어 나타난다.

운동주는 1940년 24세 때 외삼촌인 김약연²³⁾ 선생으로부터 『詩傳』을

23) 규암 김약연은 맹자를 만독하였고, 맹자의 정치철학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비결을 찾았다. 그는 40세에 이르러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정의와 그 실현을 역사에서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다. 윤영춘에 따르면 운동주라는 이름도 그의 외숙이었던 규암이 붙여준 것이었다. 서평일에 따르면, 김약연은 독립이념 근대이념의 모색은 전통유학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독교 신앙을 그 보유훈으로 수용하였다. 그는 기독교 신앙과 전통사상을 민족애의 용광로 속에서 녹여 교회운동을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채택하였다. 김약연과 명동교인들은 민족의 독립운동을 신앙의 의로서 인식했고, 정의를 지 못한 역사현실보다 큰 악이었던 일제에 저항하고자 할 때는 폭력제거의 수단으로 교회가 무저항이나 비폭력이어야 한다는 정통신학의 선형적 가치를 극복하면서 복음의 역동성과 해방의 의미를 무력수단에서 긍정하였다. 김약연은 강도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적 통치를 타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사용의 신앙적 모험과 결단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서평일·김재홍, 『규암 김약연 선생』, 고려글방, 1997, 86-181쪽 참조

배웠다고 하는데, 그의 명상시가 1937년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일찍부터 마음을 닦는 유교적 수양론에 익숙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만 유학에서는居敬과 격물치지라는 방법을 통해 정신을 수양한다면,²⁴⁾ 윤동주는 견기명상을 통해 마음을 닦고 있다는 점에서²⁵⁾ 시인의 체험적인 수양방법이 그의 시에서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을 닦는 방법이 어떠한 간에 윤동주는 『시전』을 배우는 과정에서 주희나 퇴계의 거울시에 대해서도 배웠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참회록」(1942. 1. 24)에서 거울 모티프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윤동주의 거울 모티프의 시는 그 거울이 우물이 되었든 구리거울이 되었든 자기 성찰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유교의 수양론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⁶⁾ 「참회록」의 밤마다 온몸으로 거울을 닦아서 나타나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은 다름 아닌 자신의 본성을 통찰한 것이고, 「쉽게씨워진詩」(1942. 6. 3)의 “詩人이란 슬픈天命”은 자신의 본성이 슬픈 시인의 소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며, 「서시」는 이 시인의 소명이 하늘에 대한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4) 풍우란, 『중국철학사』, 정인재 역, 형설출판사, 1977, 385쪽 참조.

25) 엄국현, 「윤동주의 명상시와 견기의 모티프」, 『한국문학논총』43집, 2006. 8, 209-212쪽.

26) 김윤식은 윤동주의 거울 모티프의 시를 나르시스 의식이나 릴케의 거울, 혹은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과 관련시켜 논의하면서 「자화상」의 우물 이미지에서 ‘자기 성찰의 비극적 운명’, 혹은 거울 속에 비친 ‘허깨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다시 말하면 ‘물에 비친 나르시스의 운명’을 읽어내고, 「참회록」의 구리거울에서 ‘역사의식’, ‘민족의식’을 읽어내고 있다.(김윤식, 『윤동주의 자화상』, 『(속)한국근대문학사상』, 서문당, 1978, 136-150쪽.) 윤동주는 명상을 통해 나르시스의 자기도취를 뜻하는 ‘自惚’을 씻어내고(「異蹟」),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나르시스 의식이 아니라 유교적 수양론과 관련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우물이나 구리거울은 동일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안테 주어진 길을
거러가야했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서시」 전문. 140.

부끄러움 없는 삶,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라는 하늘의 명령이며, 당위적 삶이다. 그러나 지상의 인간은 잎새처럼 인간의 실존적 한계에 괴로워하며 흔들리는 존재다. 시적 자아는 그러나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며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고자 결단함으로써 당위와 현실 사이의 거리를 극복하고자 한다. 2연의 마지막 한 행은 침묵 속에서 울리는 우주의 풍경처럼 느껴진다. 천상적이며 가시적인 존재인 별과 지상적이며 비가시적인 바람이 서로 스치며 감응한다. 감응하며 생동한다.²⁷⁾ 1연에서 괴로움과 관련되던 바람은 2연에서 감응의 상징으로 변모되고 있다. 천상적 존재인 별과 지상적 존재인 바람이

27) 유가사상의 기초가 되는 사상체계는 운행사유이다. “운행사유에서의 가시와 비가시는 그것을 분리된 두 세계로서 간주하는 서구존재론에서와는 달리, 생성을 축으로 서로 긴밀히 의존한다. 이 운행사유의 특징인 존재물 간의 연대감과 작용은 서로 교차하면서 맺어진다. 모든 숨은 부분은 가시와 별도로 있지 않고 항상 운행의 논리에 따라 상호관계와 변화 속에 통합된다. 이러한 가시와 비가시 간의 관계개념은 중국인들의 심미의식의 토대다. 중국의 문학적 성찰이 시적 의미를 환기시킴에 있어 바람이 거론되는 까닭은 바람이 비가시적이고 무한한 감응의 영역을 표현하는 데 적실하기 때문이다. 바람은 보이지 않고 붙잡을 수 없다. 그러나 풀잎과 나뭇잎의 극히 사소한 미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풍경은 바람의 스침에 생기를 받으며 그 스쳐감을 알린다.” 프랑스와 즐리앙, 『운행과 창조』, 120쪽 및 133-134쪽 참조.

아무런 거리도 없이 감응하고 교류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지상적 삶의 한계를 사랑과 소명으로 극복하겠다는 결단 뒤에 찾아오는 것, 인간의 본성적 삶과 지상적 삶이 조화를 이룬 데서 오는 평화로움의 감정, 그것은 무아지경의 신비한 우주적 감정이 아닐까.

「서시」는 하늘의 뜻에 따른 부끄러움 없는 삶, 인격적인 삶을 노래한다. 절대적 존재인 하늘에 대한 신앙과 인격적 삶은 유교와 기독교의 유사성이며, 이것은 운동주의 시 속에서 유교적 기독교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시인의 길과 유교적 수양론, 그리고 동심

「참회록」의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은 시인의 본래적 삶을 통찰한 것, 다시 말하면 천명에 충실한 시인의 운명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동주가 시인을 ‘슬픈 천명’이라고 한 것은 시인이라는 소명노동이 ‘홀로’여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고독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무 겁기 때문인데, 그 무거움은 ‘침전’이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해보면 어린때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沈澱하는것일까?

- 「쉽게씨워진詩」 5, 6연. 181.

비록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의문형의 수사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운동주의 바람은 이 시의 2연이나 다른 시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시인’이 되는 것이었다.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동무들과

떨어져서 홀로 걸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둠에 빛을 가져오는 무겁고 힘든 일이므로 ‘홀로 침전하는’ 것이다. 고독하고 힘든 시인의 소명을 그는 ‘슬픈 천명’이라고 한 것이다.

시인이 되는 길은 외롭고 힘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함이 필요한 소명노동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음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수양론과 관련되며, 시에서는 길의 모티프로 나타난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길

문들레가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길은 언제나 새로운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새로운길」 전문. 148.

운동주의 시 「새로운길」은 유교 경전 가운데 『대학』의 한 구절인 “네가 진정 하루 동안 새로워질 수 있다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²⁸⁾라는 말을 형상화한 것이라 여겨진

28) 뚜 웨이밍, 『뚜 웨이밍의 유학 강의』, 정용환 옮김, 청계출판사, 2001, 초판2쇄, 28쪽 참조. 원문과 한상갑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湯之盤銘曰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탕이 욕통에 새기기를 <진실로 하루가 새롭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하였으며”, 『大學』, 삼성출판사, 1977, 393쪽.

다.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실현의 과정, 자기 수양을 위한 유교의 도덕적 노력은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걷는 것으로 은유할 수 있다.²⁹⁾

자기실현의 길은 그러나 곧은 길이 아니라 운명적인 우회로와 오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불구불한 길이다.³⁰⁾ 현실과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운동주는 시인의 소명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였고, 자신의 지조 없음을 자책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삶은 자신이 원래 걷던 담 저쪽의 길임을 깨닫고, 그것을 찾고자 다짐한다.

풀 한 포기 없는 이길을 걷는것은
담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것은, 다만
잃은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길」의 끝 부분. 163.

자기의 사명을 놓치고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 그 길은 풀 한 포기 없는 길과 같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잃은것을 찾는” 것이다. 잃은 것을 찾는다는 표현은 잃어버린 인간의 본성을 찾아야 한다는 맹자의 수양론인 ‘求放心’을 떠올리게 하는데,³¹⁾ 맹자의 이른바 ‘달아난 마음’, ‘본심’은 본래적인 자기라고 할 수도 있고, 양심이라 말할 수도 있고, 동심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의 부름은 현존재를 그

29) 「새로운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필자의 논문 「운동주의 명상시와 걷기의 모티프」, 220-221쪽에 미루기로 한다.

30)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172-176쪽 참조.

31) “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가지 아니하며, 그 마음을 버려두고 찾을 줄 모르니, 슬프도다! 사람은 닭이나 개가 달아남이 있으면, 이를 찾을 줄 알고, 달아난 마음이 있으면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길이란 다름이 없다. 그 달아난 마음을 찾는 것뿐이다.” 『맹자』 제11장 求放心章, 홍인표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초판 2쇄, 373쪽.

의 가장 고유한 자기존재가능으로 불러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³²⁾ 운동주는 이 본래적 자기를 동심에서도 찾고 있다.

「새로운길」이 자기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본심을 지닌 자의 건강한 삶을 노래하고 있다면, 「길」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잃고 황폐해진 마음을 돌이켜 어린 시절에 지녔던 순수한 마음, 본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길」에서 시적 자아가 잃어버린 것은 본심이라 할 수도 있고, 동심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운동주가 그의 필명을 童柱 혹은 童舟라 하기도 하고, 童詩를 쓰기도 하는 등 동심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며, 동심은 인격 수양의 마지막 도달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³³⁾

사실상 어린아이는 아직 분열되지 않은 전체정신인 자기를 상징하며, 정신적으로 혼돈에 빠져 있을 때 방향을 가리켜 주는 것이다.³⁴⁾ 대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으며,³⁵⁾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³⁶⁾ 동심은 眞心이고 천하의 훌륭한 글은 동심으로부터 나온다.³⁷⁾ 운동주의 시는 명상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명상을 통해 자기를 분석하고 자신의 본래적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데,³⁸⁾ 명

32)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 1998, 360쪽.

33) 꼬리를 문 뱀처럼 최후의 단계는 최초의 단계와 일치한다. “맹자가, 큰 사람은 어린 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듯이, 70세 때 공자는 구애받지 않는 자유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훌륭한 수양을 통해서 스며나는 자연스러움, 즉 노년기에 다시 어린 아이가 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뚜 웨이밍, 『뚜 웨이밍의 유학 강의』, 47쪽.

34)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304쪽 및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98, 116-117쪽 참조.

35) “孟子曰, 大人者 不失其赤子心也”, 『孟子』, 離婁下 12장, 269쪽. 주희에 따르면 대인이란 본연의 성품을 온전히 한 사람을 일컫는다. 주희/한상갑 역, 『맹자』, 1977, 198쪽 참조.

36) 『성서』, 대한성서공회, 1980, 17판, 36쪽. 『마태복음』 18:3.

37) 이 지, 『분서』, 홍승직 옮김, 홍익출판사, 1998, 179-185쪽 참조.

38) 엄국현, 「운동주의 명상시 연구」, 218쪽. “시는 聖의 특권적 표현방식이며 신성

상적인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한 가지 방법이다.³⁹⁾ 이것이 그의 시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대인의 眞心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운동주의 시에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사랑의 감정(仁의 발단)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義의 발단)을 노래한 시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다음 작품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대인의 마음⁴⁰⁾ 잘 나타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우에
내 일흠자를 써보고,
흠으로 덤혀 버리었습니다.

따는 방을 새워 우는 버레는
부끄러운 일흠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一九四一. 十一.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우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일흠자 묻힌 언덕우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 할게외다,

- 『별헤는밤』의 끝 부분. 165-166.

한 것이기 때문에 시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어야만 근원으로, 황금시대의 원초적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시몬느 비에른느, 『통과제의와 문학』, 이재실 옮김, 문학동네, 1996, 153-154쪽 참조

39) Joan Borysenko Miroslav Borysenko, 장현갑 추천회 김종성 공역,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 학지사, 2005, 199쪽 참조

40) “왕자점이 물었다. 선비는 무슨 일을 하나요? 맹자: 뜻을 고상하게 합니다. 무엇이 뜻을 고상하게 합니까? 仁義를 행할 뿐입니다. 한 사람의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차지하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살 곳은 어디에 있나요? 인이 바로 그곳입니다. 갈 길은 어디에 있나요? 의가 바로 그 길입니다. 인에 살며, 의를 행하면, 大人의 일은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맹자』, 451쪽.)

시적 자아의 그리움이 흠을 덮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그의 그리움이 단순히 어머니를 비롯한 그가 좋아하던 사람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그의 그리움은 ‘일흠’, 혹은 ‘부끄러운 일흠’과 관련되어 있다.

맹자는 자기보다 나은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을 義의 발단이라 보았다.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것은 자신을 향상, 발전시키는 원인이다.⁴¹⁾ 그렇다면 ‘일흠’이란 시적 자아가 도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자아, ‘부끄러운 일흠’이란 아직 본질적인 자아에 도달하지 못한 현실적인 자아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시적 자아는 그러나 현실적인 자아에 절망하지 않고, “『뿌랑시쓰 째』,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런 詩人의 일흠”처럼 빛나는 詩人이 되고자 한다. 그것이 시를 끝낸 뒤에 다시 한 연을 덧붙이게 하였을 것이다. 순수한 동심과 대인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초월적 단계를 어린 시절에 미리 맛보게 하는 인생의 놀라운 역설과 은총을 운동주 역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 동심을 잃었을 때 ‘붉은 마음의 답’(『꿈은 깨어지고』)이 무너졌다고 하였고, 『길』에서 잃은 것을 찾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IV. 식민지 시대의 종말론과 종말론적 서정시

기독교와 유교의 차이점은 종말론에서 찾을 수 있다. 종말론이란 마지막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종종 일련의 끝에 올 일들이 아닌 최종

41) 홍인표, 『맹자 서설』, 『맹자』, 24쪽. “수치는 사람에게 있어 중대하다. 임기응변의 기교를 부리는 사람에게는 수치를 느낄 것이 없다. 다른 사람과 같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사람과 같음을 지니겠는가?” 『맹자』 盡心上, 第七 恥之於人大矣章, 424쪽.

적이며 궁극적인 일들, 즉 하느님의 다가오는 승리가 모든 우리의 현재의 투쟁과 헌숨을 그의 영광의 영원한 기쁨으로 변형시킬 것이라는 비전에 대해 언급하기 때문에 종말론이라는 혼란스러운 개념 대신에 묵시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바울의 묵시사상적 복음은 묵시문학적 요소들로 구성되는데, 유대 묵시문학이 번성했던 시기는 바빌론 포로 이래로 박해, 죽음, 고난으로 점철되는 등 순교의 시기였다. 묵시문학자들은 왜 율법의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이 박해와 고난으로 보상되는가? 라는 문제, 다시 말하면 현실성과 당위성 사이의 불일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꿈들, 환상들, 세계 사건들에 대한 관찰, 다가올 재난과 마지막 구원에 대한 묘사들을 사용하는 문학 안에서 표현했다.⁴²⁾

J. C. 베커는 바울신학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와 관련된 종말론 혹은 묵시사상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역사의 최종적인 종결 혹은 완료사건으로서의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임박한 오심에 대한 희망이 없이 진정한 바울신학은 있을 수 없다. 변호, 보편주의, 그리고 이원론의 묵시문학적 주제들이 모두 현재의 모든 이원론적 구조들과 모든 고난을 해결할 하느님의 보편적이며 우주적 통치에 대한 희망의 격렬함에 의해 포용된다. 하느님 나라의 이 다가오는 새로운 질서는 급진적으로 현재의 사회 종교적 세계의 가치들에 대립하며, 현재의 권력구조의 대표자들을 거부한다.⁴³⁾

종말론이란 현재의 고난을 해결할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재림 및 하느님의 우주적 통치에 대한 희망, 그리고 현재의 권력과 가치에 대한 거부라 하겠다.

프랑스와 줄리앙은 서양사유의 특징은 창조개념이고 동양사유의 특징

42) J. C. 베커, 『바울의 묵시사상적 복음』, 15-19쪽 및 36-38쪽 참조.

43) J. C. 베커, 『바울의 묵시사상적 복음』, 60쪽 및 116쪽 참조.

은 운행개념이라고 하면서 이 두 사유체계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농경민이었던 중국인들이 계절의 순환에 따른 파급적이고 간접적이며 비가시적인 무한한 영향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목민이었던 유대인과 기독교의 신은 말하고 명령하는 목자들의 신이었다. 음과 양, 하늘과 땅 즉 이원성의 상관성이 모든 실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중국의 운행사상은 운행의 외적인 원인을 배제한다. 이에 따라 운행사상에서는 세계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본다. 중국의 운행사상은 일체의 종말론적 허구와 우주론적 상상을 벗어난다. 하늘에 협력하는 현자는 하늘과 달리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사상은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유태교와 기독교에서는 세계의 외적인 창조주, 즉 신의 말씀에 의한 명령으로 세계가 창조되며, 지상과 천상, 자연과 은총, 신성과 세속의 분리를 그 특징으로 한다.⁴⁴⁾

기독교에 있어서 신은 세계를 창조하였듯이 인간의 역사에도 개입한다. 역사의 종말과 하느님 나라의 임박한 도래를 강조하는 종말론은 기독교의 특징이며, 종말론은 유교와 기독교를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운동주의 시에서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시로는 「새벽이올때까지」를 들 수 있으며, 이 시가 종말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마광수와⁴⁵⁾ 신익호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44) 프랑스와 줄리앙, 『운행과 창조』, 53-280쪽 참조.

45) 마광수, 『운동주 연구』, 136-141쪽 참조. 마광수는 이들 작품 가운데 <태초의 아침>에서 저항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던 바(“<태초의 아침>은 운동주를 저항시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질적인 작품임에 틀림없다. 부단한 저항정신이나, 이미 예정되어 있는 운명일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고야 말겠다는 패기나 용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41쪽.), 그것은 시의 소재를 자신의 삶과 연관시키는 운동주 시의 일반적 모습과 달리, 이 시는 기독교의 교리를 형상화하는 데만 쫓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검은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

그리고 한 寢臺에
가즈런이 잠을 채우시오

다들 울거들랑
젖을 먹이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소리 들려 올게외다.

-「새벽이올때까지」 전문. 153.

이 시에 나타난 ‘나팔소리’ 이미지는 기독교의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다. 바울이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종말론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 두십시오. 살과 피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은 불멸의 것을 이어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I 고린토』 15:50-54)⁴⁶⁾

요한 계시록이나 다니엘 등의 묵시문학(종말론적 문학)에서 나타나듯이 ‘나팔 소리’는 모든 악을 심판하고 어둠과 고통을 물리치는 해방의 소

46) 『성서』, 336쪽.

리이거나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이다. 『새벽이올때까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사의 분열된 양극성의 흔적(‘검은 옷’, ‘흰 옷’)을 한 몸(‘한 침대’)에 지니고 잠도 자고 슬플 땐 위로(‘젖’)도 받아야 하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은 나팔소리 울리는 종말의 날 마침내 끝이 나고 불멸과 불사의 한 몸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말론적 세계관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人生은 살기어렵다는데
詩가 이렇게 쉽게 써워지는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六疊房은남의나라
窓밖에 밤비가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내밀어
눈물과 慰安으로잡는 最初의 傭手.

- 『쉽게써워진詩』의 끝 부분. 180-182.

윤동주는 『十字架』에서 자신의 삶의 소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에의 결단’을 보인 바 있는데, 『쉽게써워진詩』의 ‘최후의 나’라는 이미지도 역시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결단을 보여준다. 이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는 실존적인 결단’을 불트만은 ‘십자가 중심성’이라 한 바 있는데,⁴⁷⁾ 이 시에 나타나는 최후-최초의 모티프는 실존적 결단을 추구하는 십자가 중심성과 함께 종말론적 희망의 주제를 동시에 암시한다.

윤동주의 시에 나타나는 종말론은 기독교 교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47) J. C. 베커, 『바울의 묵시사상적 복음』, 85-86쪽 참조.

식민지 시대의 민족주의 운동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종말론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지니는 시대적 의미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세상의 끝이 도래했다는 말세의식과 예수가 재림하여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문제는 한국 기독교사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고 종교사회학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이 일제 식민지하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일제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의 재림에 의해 새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신앙은 식민지하의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희망 그것이었다. 때문에 한국교회의 초석을 닦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의 재림과 관련된 종말사상과 천년왕국 사상은 한국 기독교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중심어가 될 수 있다.⁴⁸⁾

3·1운동에서 좌절한 한국 기독교인들은 1920년대에 들어서서 말세의식을 강조하고 새로운 나라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은 길전주 목사다. 그의 말세신앙은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지상낙원을 설정하는 것인데, 예수의 재림은 이 무궁안식세계를 이룩하는 출발이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의 전시체제와 신사참배가 강화되었는데, 일제 말기 천황숭배사상에 맞서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민족적 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신앙적 사상적 힘은 바로 이 재림신앙과 천년왕국 신앙에 근거하고 있었다.⁴⁹⁾

재림신앙의 심화에 따라 한국 기독교인들은 임박한 미래에 예수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실현이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이명직은 주께서 임하시게 되면 불의한 국가와 조직과 제도와 죄인을 심판하고 정의의 왕국을 건설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⁰⁾ 일제는 기독교의 교리 중에 재림신앙을 가장

48) 이만열, 『한국기독교의 말세의식과 천년왕국사상』,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1, 221쪽.

49) 이만열, 『한국기독교의 말세의식과 천년왕국사상』, 261-265쪽 참조.

50) 이명직, 『그리스도께서 來臨하심』, 노치준,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위험시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국체변혁의 죄목에 해당하도록 조작하였으며, 1941년 성결교와 안식교를 재림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폐쇄시켜 버렸다. 전시동원체제를 강화하면서 일제는 기독교가 지상에 천년왕국을 건설한다는 데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양원 목사를 법망에 건 경찰의 조서에는 이 점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우선 공중에 재림하시어 부활한 신도들과 함께 7년간 혼인잔치가 개설되는데, 그 7년 동안 지상에서는 신자 불신자 간에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발생한다. 전쟁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도측의 승리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공중에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천황제인 우리 국체도 변혁을 면할 수 없는 운명에 있는 것이다. 천년간 이상 왕국 시대가 출현하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각국을 통치 지배하는 천년 말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이때 우리 일본 국체도 완전하게 멸망되어 통치권을 소유하는 천왕 폐하도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상실 당하고 일반 불신자와 같은 지위에 전락되어 피땀에 추방당하는 것이다.⁵¹⁾

종말론과 재림신앙은 일제가 치안유지법이란 죄목으로 처벌할 만큼 일제의 국체를 위협하는 사상임을 알 수 있는데, 운동주가 재림신앙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잘 보여주는 시가 「호르는거리」라는 시이다.

「새로운날아침 우리 다시 情답게 손목을잡어 보세, 몇字 적어 포스트 속에 떠러트리고, 밤을 새워 기다리면 金徽章에 金탄추를 빼였고 巨人 처럼 찬란히 나타나는 配達夫, 아침과 함께 즐거운 來臨,

이밤을 하염없이 안개가 흐른다.

- 「호르는거리」의 끝 부분. 180.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3, 145쪽.

51) 이만열, 「한국기독교의 말세의식과 천년왕국사상」, 265쪽.

이 시의 ‘來臨’이라는 말은 종말론의 재림신앙에서 나온 말이다. 사랑 하는 동무의 편지를 가지고 오는 배달부를 기다리고 또 그가 나타나는 것을 ‘來臨’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재림신앙에 비추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흐르는거리」와 「쉽게씨워진詩」는 모두 1942년에 씌어진 것인데, 「쉽게씨워진詩」에서도 종말론과 관련된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가 ‘시대 상황에 대한 괴로운 인식을 담고’ 있으며, “슬픈天命”은 ‘식민지의 시인됨’을, “시대처럼 올 아침”은 조국의 광복을 암시한다고 보기도 하지만,⁵²⁾ “슬픈天命”은 앞에서 이미 분석한 것처럼 고독하고 힘든 시인의 소명을 표현한 말이다. 이 시에 나타나는 ‘어둠’은 시대적인 어둠이 아니라 현실적인 자기의 어둠이며, ‘시대처럼 올 아침’도 시대상황과 관련된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자아의 종말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이 시에 나타난 ‘시대’란 말은 시대 상황이나 사회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란 천명을 실존적 결단을 통해 받아들인다는 종말론적 희망, 다시 말하면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로마8:1) 개인적 결단을 강조하는 실존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눈물과 위안’이라는 실존적 결단을 통해 현실적인 자기와 본래적인 자기의 분열 현상인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빛의 세계의 도래를 희망한다. 이 때문에 “시대처럼 올 아침”의 ‘시대’는 시인의 사명에 충실한 새로운 삶의 시작과 그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비유적 의미를 지닌 말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에 나타난 종말론은 시인이란 소명을 십자가처럼 지는 결단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⁵³⁾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종말론은 사회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비유

52) 유종호, 『시 읽기의 방법』, 삶과 꿈, 2005, 초판2쇄, 135-137쪽 참조.

53) “바울복음에 대한 실존주의적 분석의 힘은 그의 설교의 전적인 중심을 형성하는 바울의 소명과 사도직의 독특함에 그 초점이 놓여 있다. 불트만은 바울사상의 핵심으로서 십자가 중심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는 십자가를 지

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나 실존적인 종말론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가 『성경』의 종말론을 자신의 삶과 관련시켜 주체적으로 읽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독서체험의 주체적인 시적 형상화는 그의 시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⁵⁴⁾

「흐르는거리」와 「쉽게세워진詩」는 서정적인 시로서 일제에 저항하는 아무런 내용도 없다.⁵⁵⁾ 그러나 일제하 한국기독교의 종말론과 예수의 재림은 불의한 국가와 제도의 종말 곧 일제의 종말을 의미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을 담고 있었던⁵⁶⁾ 시대상황을 고려한다면 운동주의 시에 종말론과 재림신앙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종말론적 서정시는 이념적인 저항시가 될 수 있다.⁵⁷⁾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의 의미는 시의 본문에 대한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시의 본문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으므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 한 시의 의미는 본문을 넘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운동주의 종말론적 서정시가 일제하 한국기독교의 종말론 신앙과 달리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은 자신의 사명과 운명에 몰두하던 운동주에게 시대의식과 역사의식에 대한 안목을 시나브로 열어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종말론은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역사의 운명과도 관련되기 때문인데,⁵⁸⁾ 자신을 성

는 자들이 되는 실존적인 결단을 수반한다.” J.C. 베커, 『바울의 목시사상적 복음』, 85-86쪽 참조

54) 운동주가 『성경』의 창세기와 마태복음, 그리고 앙드레 지드의 소설을 주체적으로 읽고 있는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는, 엄국현, 『운동주의 명상시 연구』, 204-207쪽 참조

55) 오세영은 작품이 발표된 시기, 작품의 내용, 시어 등을 고려할 때 운동주 시는 저항시가 아니라고 본 바 있다. 오세영, 『운동주의 시는 저항시인가?』, 『운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5, 373쪽.

56) 노치준,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155쪽.

57) 정치적인 탄압의 시대에 저항의 무기로는 이념이 적합한 것이다. 제임스 D. 윌킨슨, 『지식인과 저항』, 이인호 김태승 역, 문학과 지성사, 1992, 3쇄, 20쪽 참조

찰하며 내적 성장과 자신의 사명에 몰두하던 윤동주의 명상시가 때로는 민족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⁵⁹⁾ 때로는 “時代를 슬퍼한 일도 없다”는 「바람이불어」에서처럼 ‘시대’(이 시의 ‘시대’란 말은 당대, 혹은 세상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후쿠오카 감옥에서 죽게 되었던 것은 종말론의 이와 같은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독교의 종말론뿐만 아니라 유교적 세계관에서 볼 수 있는 관계영성도 윤동주를 민족애로 이끌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가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후쿠오카 감옥에서 죽게 된 것은 기독교의 종말론 사상이나 유교적 관계영성에 기초한 민족애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옥사는 “식민지 인텔리의 불운한 죽음”⁶⁰⁾이 아니라 “思想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돌아다보는밤』, 145)간 결과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윤동주는 기독교 시인이지만 그의 시에는 유교와 관련된 시가 많으며, 그의 시는 한 마디로 ‘天命’의 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유교적 ‘천명’은 ‘하나님말씀’으로도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유교와 기독교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진다. 그의 시에서 유교와 기독교는 조화롭게 만나고 있는데, 이 유교와 기독교의 조화로운 만남을 ‘유

58) 『The New Bible Dictionary』, London, IVF, 1965, p.386.

59) 윤동주의 시에서 민족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로는 1937년의 「장」, 38년의 「슬픈族屬」, 41년의 「看板없는거리」, 42년의 「흰그림자」를 들 수 있다. 이들 시에 대해서 필자는 「자기분석과 존재의 빛에 대한 통찰」, 201-205쪽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60) 오세영, 「윤동주의 시는 저항시인가?」, 387쪽.

교적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늘을 알고 하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며, 운동주의 시에 나타나는 길의 모티프나 거울 모티프는 어진 인격자가 되기 위한 유교의 수양론을 반영한 것이다. 기독교에 있어서도 수덕과 신비적 수행이 중요한 만큼 수양론은 유교와 기독교가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운동주의 시에서 유교적 관념을 형상화한 작품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서운時間』은 시인의 사명을 위협하는 운명에 대한 불안한 예감을 노래하는 작품인데, 천명은 사명과 운명의 뜻을 모두 지닌 말이다. 『새로운길』은 자기 수양을 위한 유교의 도덕적 노력을, 『길』은 『맹자』의 ‘求放心’을, 『서시』는 만물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유교적 관계영성을 형상화한 작품이었다. 운동주의 거울 모티프의 시는 그 거울이 우물이든 구리거울이든 자기 성찰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교의 수양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참회록』은 자신의 삶의 본성을 통찰한 시인데, “홀로거러가는/슬픈사람”은 시인의 슬픈 천명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운동주의 시의 바탕에는 유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기독교 시인 운동주에게 유교적 사유는 이다지 친숙한 것이었다.

유교의 수양론은 심성의 보존과 배양을 통해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데, 운동주의 시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마음의 수양이란 문제이며, 이것을 그는 명상이라고 부른 바 있다. 운동주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사명과 운명을 통찰하였고, 현실과 소명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자신의 본래적 삶인 천명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이 본래적 삶은 대인의 진심이나 양심, 그리고 동심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현실적 삶과 시인의 소명이란 인생의 두 길 사이에서 유혹에 떨어졌다(『肝』), 지조를 잃었다며(『또다른故郷』) 흔들리던 그는 자신의 본래적 삶과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야 한다고(『길』) 보는데, 이것은 동심이 본래적 삶을 회복한 대인의 진심과 통

한다고 보는 맹자의 수양론이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의 사상과 통하는 것이며, 「별헤는밤」은 동심을 잃지 않은 대인의 마음이 잘 나타난 작품이었다.

운동주의 시에는 유교적 세계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말론과 재림사상이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교적 세계관과 다른 점도 있다. 일제하 한국기독교의 종말론과 예수의 재림신앙은 불의한 국가와 제도의 종말 곧 일제의 종말을 의미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을 담고 있었다. 운동주의 시 「새벽이올때까지」, 「흐르는거리」, 「쉽게썩워진진詩」에 나타나는 종말론은 그러나 사회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성서의 종말론을 관념적으로 형상화하거나 동무의 편지에 대한 기다림과 관련된 것이거나 시인이란 천명을 결단을 통해 받아들이는 실존적인 것이었다. 이들 시에 나타난 종말론에서 사회역사성이나 정치적 저항성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제하 한국기독교의 종말론이 체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을 담고 있었던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운동주의 종말론적 서정시는 이념적인 저항시가 될 수 있다. 시의 본문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으므로, 시대상황과 같은 고려할 사항이 있을 때 시의 의미는 본문을 넘어 확장되어야 한다. 운동주의 시에 나타난 민족에 대한 사랑과 시대에 대한 반성의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은 유교적 관계영성이나 기독교의 종말론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의 독립운동과 후쿠오카 감옥에서의 옥사도 그가 지녔던 사상과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운동주가 종말론을 믿었다는 것은 그가 비극적인 세계관의 소유자가 아니란 것을 뜻하며, 그의 시에 ‘슬픈’이라는 말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의 시는 「희망과 구원의 시학」(김남조)의 관점에서 읽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연희전문 시절 그에게 신앙의 회의기가 있었다는 문익환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대의 합리적 이성애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기독교 신앙을 지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시 「八

福』을 반기독교시라거나 풍자적 개작인 패러디로 본다거나, 「츠르케네 프의 언덕』을 풍자시라고 하는 것은 인격수양에 힘쓰고 하늘의 명령에 따라 살고자 했으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자 했던 시인의 인격이나 기독교 신앙에 어울리지 않는 해석일 것이다.

주제어 : 윤동주, 유교적 기독교, 거울이미지, 종말론, 종말론적 서정시

참고문헌

-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 왕신영·심원섭·오오무라 마스오·윤인석 엮음, 민음사, 1999, 140-182쪽.
- 『대학』, 한상갑 역, 삼성출판사, 1977, 393쪽.
- 『맹자』, 홍인표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24, 269, 373, 424, 451쪽.
- 『맹자』, 주희/한상갑 역, 삼성출판사, 1977, 198쪽.
- 『성서』, 대한성서공회, 1980, 36, 336쪽.
- 금장태,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199쪽.
- 김남조, 「윤동주 연구-자아의식의 변모를 중심으로」, 『윤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5, 49쪽.
- 김승혜, 『논어의 그리스도교적 이해』, 도서출판 영성생활, 2002, 333-339쪽.
- 김윤식, 『청춘의 감각, 조국의 사상』, 솔출판사, 1999, 90쪽.
- 김윤식, 『(속)한국근대문학사상』, 서문당, 1978, 136-150쪽.
- 김현자, 「대립의 초극과 화해의 시학」, 『윤동주 연구』, 279쪽.
- 김형효, 『맹자와 순자의 철학사상』, 삼지원, 1990, 28-30쪽.
- 노치준,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3, 155쪽.
- 마광수, 『윤동주 연구』, 정음사, 1986, 136, 136-141쪽.
- 서평일 김재홍, 『규암 김약연 선생』, 고려글방, 1997, 86-181쪽.
- 송우혜, 『윤동주 평전』, 세계사, 1998, 255-256쪽.
- 신귀현, 『퇴계 이황』, 예문서원, 2001, 112, 113-114, 113-119, 123쪽.
- 신익호, 『문학과 종교의 만남』, 한국문화사, 1996, 230쪽.
- 엄국현, 「자기분석과 존재의 빛에 대한 통찰」, 『현대문학의 심리학적 해석』, 2000, 200, 201-205, 206쪽.
- 엄국현, 「윤동주의 명상시 연구」, 『신어어문학』 1집, 2004, 204-207, 212,

218쪽.

엄국현, 『운동주의 명상시와 건기의 모티프』, 『한국문학논총』43집, 209-212, 220-221쪽.

오세영, 『운동주의 시는 저항시인가?』, 『운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5, 373, 387쪽.

오세영, 『한국현대시 분석적 읽기』,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250-251쪽.

유종호, 『시 읽기의 방법』, 도서출판 삶과꿈, 2005, 135-137쪽.

이만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두레시대, 1998, 409-411쪽.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1, 221, 261-265쪽.

이명직, 『그리스도께서 來臨하심』(노치준,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145쪽.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172-176, 304쪽.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98, 116-117쪽.

이은선·이정배, 『현대이후주의와 기독교』, 다산글방, 1993, 66, 509쪽.

정대위, 『그리스도교와 동양인의 세계』, 한국신학연구소, 1986, 27, 152쪽.

풍우란, 『중국철학사』, 형설출판사, 1977, 385쪽.

이 지, 『분서』, 홍승직 옮김, 홍익출판사, 1998, 179-185쪽.

뚜 웨이밍, 『뚜 웨이밍의 유학강의』, 정용찬 옮김, 청계출판사, 2001, 28, 47쪽.

시몬느 비에른느, 『통과제의와 문학』, 이재실 옮김, 문학동네, 1996, 153-154쪽.

제임스 D. 윌킨슨, 『지식인과 저항』, 이인호 김태승 역, 문학과지성사, 1992, 20쪽.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 1998, 360쪽.

프랑스와 줄리앙, 『운행과 창조』, 유병태 옮김, 도서출판 케이지, 2003,

53-280, 120, 133-134, 179-180쪽.

J. C. 베커, 『바울의 묵시사상적 복음』, 장상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1987,
11-116쪽.

Joan Borysenko Miroslav Borysenko,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 장현갑
추선희 김종성 공역, 학지사, 2005, 199쪽.

『The New Bible Dictionary』, London, IVF, 1965, 386쪽.

<Abstract>

Confucian Christianity and Eschatology in Yoon Dong-Joo's Poems

Eom, Kook-Hyeon

Yoon Dong-Joo was a Christian poet. But I think he was a Confucian Christian. In his poems, there are many poems which concerns with Confucianism. I suppose that he would think that Christianity and Confucianism is not a different religion. Because he wrought God's will by means of Christian words at his poem on one occasion, and he did it by Confucian on another poem.

The mirror image of his poem symbolizes the human mind. The Confucianism represents human mind by mirror. To polish the mirror means to cultivate the mind in Confucianism. The well-polished mirror represents a good-natured person. The Confucian contemplation aims at improving the morality and human nature. He wanted to recover the human nature by contemplation.

In the age of imperial Japan the Eschatology and the Second Advent of Christ means that the imperialist Japan falls on an end and the system of present nation is evil. In Yoon Dong-Joo's poems, there were a few poems which expresses the Eschatology. We can not find resistant content in his eschatological poem. But if we consider the situation of the ages that the eschatology was dangerous thought to the imperial Japan, we can see his eschatological poems as a ideological resistant poetry. He was dead in prison by reaso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 think his Confucianism and Eschatology led him to the death in prison.

Key Words : Yoon Dong-Joo, Confucian Christian, the mirror image, eschatology, eschatological poem